



추억 급식

미포초 6-2 박소이

급식실에 들어가는 순간 군침이 돈다

오늘은 뭐가 나올까?

생각하며 밥을 받는다

볶음밥은 무슨 추억을 가지고 있을까?

한입 크게 먹자

해변에서 가족들과 걷다가 들어간 식당에서

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겁지만 맛있는 그 맛

갈비찜은 무슨 추억을 가지고 있을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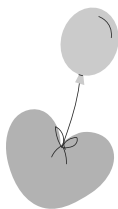
고기 한 점을 먹자

추석에

“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어~”

하시며 할머니께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신 갈비찜

입에서 고기가 살살 녹는 그 맛



김은 무슨 추억을 가지고 있을까?

볶음밥을 싸 한입 먹으면

외갓집에 가면 항상 외할머니께서 손수 구워주신 김

바삭하지만 짜지 않고 고소한 그 맛

콩나물국은 무슨 추억을 가지고 있을까?

한입 먹자

집에서 엄마께서 손수 끓여주신 콩나물국

쫄쫄하면서도 감칠맛 나며 먹을수록 시원해지는 그 맛

이렇게 추억 급식을 먹으니까

나의 소중한 추억들도 새록새록 떠오른다.

내일은 어떤 추억이 나를 기다릴까?

